

사진인류학의 연구방법론*

이기중**

1. 머리말

1830년대 말 유럽에서 탄생한 사진은, 서구사회에서 과학적인 실증주의, 기술, 발명, 대량생산, 소유권에 대한 담론이 지배하던 시대적 흐름과 함께 발전되었다. 당시 사진은 자연과 리얼리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기계적인 대량 복제’(Benjamin 1968)의 능력을 지닌 사진매체는 저널리즘 및 운송수단의 발달로 이국적인 장소나 문화적 타자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때로는 문화적 타자를 규정하고 지배하는 등 재현의 주된 수단이 되었다. 한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사진은 인류학적 탐구를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현대적 의미의 인류학이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브로니슬라브 말리노프스키, 프란츠 보아즈, 마가렛 미드와 같은 인류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인류학 연구에 사진이 이용되었다.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2006년도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부교수

그 후 사진 기술이 발달되고 카메라의 사용이 보다 편리해지면서 사진은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다각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사진문화가 나타났다.

이처럼 사진은 여러 면에서 인류학적 연구와 관련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문적인 도구로 채택되지 못했다. 한 마디로, 사진을 비롯한 시각매체는 학문의 영역에서 문자매체에 종속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문자매체는 이성, 사실, 객관적인 정보와 관련되어 이해되었는데 반해, 사진과 같은 시각매체는 직관, 예술, 주관적인 지식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Collier and Collier 1986: 169-70). 따라서 문자매체는 학문적인 연구 수단으로 간주된 반면, 시각매체는 학문적인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보다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거나 즐겁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학문적 영역에서도 주된 연구의 도구보다는 문자매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가렛 미드(Mead 1975)는 문자매체 지배적인 인류학 연구의 경향을 가리켜 인류학을 ‘문자의 학문’(discipline of a word)으로 규정하고 보다 시각적인 매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오늘날에도 시사성이 있는 지적이라 하겠다.

사회과학분야에서 사진연구가 발달되지 않은 이유는 또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진학자 앨란 세쿨라(Sekula 1975)와 프랭크 웹스터(Webster 1980)는, 모든 사진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상징주의’ 신화(‘symbolist’ folk-myth)와 ‘리얼리스트’ 신화(‘realist’ folk-myth)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진을 개인의 창조물로 보거나, 또는 반대로 사진을 리얼리티의 기계적인 기록으로 보는 신화 때문에 사회과학적인 사진연구가 발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시각에서 제이 루비(Ruby 1981) 또한 인류학 분야에서 사진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진을 리얼리티의 기록이나 미적인 대상으로 보는 전통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인류학적 시각에서 사진을 연구할 것을 주

장하였다.

본 논문은 인류학 분야의 사진연구의 주요 연구방법론을 검토하고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진인류학의 연구방법론이나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다룬 단행본이나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진에 대한 기존의 인류학적인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연구의 유형과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사진과 관련된 인류학 분야의 논의는 대체로 역사적 사진(historical photograph)에 대한 연구, 민족지 사진(ethnographic photography)¹⁾과 이에 관한 연구, 사진문화(culture of photography)에 대한 연구, 그리고 사진유도기법(photo-elicitation)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역사적 사진과 사진문화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사진(문화)을 역사적, 또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연구하는 것이며, 세 번째의 민족지 사진에 대한 연구는 문자에 의한 기존의 민족지에서 벗어나 사진을 이용한 민족지의 구성과 제작을 둘러싼 논의를 다룬다. 네 번째의 사진유도기법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유형의 연구와는 달리 현장에서 인류학적인 연구를 위해 사진을 연구도구로 사용하는 연구기법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네 가지의 연구유형의 내용과 방법론은 성격상 다소 차이점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인류학과 관련된 사진연구, 즉 ‘사진인류학’(anthropology of photography)이라는 큰 틀에서 이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사진인류학의 연구방법론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은 필자의 구분에 의한 것이지만, 실제로 인류학에서 사진과 관련된 연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네 가지 분야의 연구가 주된 형태를 이루고 있음

1) 민족지 사진(ethnographic photography)은 엄격히 말하자면 ‘사진적 민족지’(photographic ethnography)로 부르는 것이 옳다. 이런 맥락에서 제이 루비(Ruby 1975)는 민족지 영화(ethnographic film) 또한 ‘문자에 의한 민족지’라는 의미의 ‘written ethnography’와 대비하여 ‘영화적 민족지’(filmic ethnography)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제이 루비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통상 학계에서 민족지영화, 민족지 사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민족지사진’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을 알 수 있다. 사진인류학은 넓은 의미의 ‘시각/영상인류학’(visual anthropology)의 한 분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인류학의 방법은 시각/영상인류학의 이론을 기초로 논의되기도 하고 때론 중첩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연구와 관련된 모든 연구들을 총망라하기보다는 보다 이론적 배경이 뚜렷한, 대표적인 연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역사적 사진’(historical photograph)의 연구

크리스토퍼 피니(Pinney 1992: 74)가 지적한 대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사진은 인류학의 역사가 함께 진행되었다고 할 정도로 인류학적 탐구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1860년에서 1920년까지 영국의 인류학 연구와 사진과의 관계를 조명한 엘리자베스 에드워즈(Edwards 1992)의 “*Anthropology and Photography: 1860-1920*”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인류학적 사진연구에서 ‘역사적 사진’이라는 용어를 가장 명백히 사용한 것은 조이나 쉐리(Scherer 1990)의 “*Historical Photographs in Anthropological Inquiry*”의 논문과 역사적 사진에 대한 다양한 인류학적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룬 1990년도 “*Visual Anthropology*”의 특집호이다. 사실 ‘역사적 사진’이라는 범주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의 사진뿐 아니라 최근의 사진 또한 포함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쉐리의 주장이나 1990년도 “*Visual Anthropology*”의 특집호에 실린 논문들의 논지에 동의하면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생산된 인류학 관련 사진을 ‘역사적 사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역사적 사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묶은 애드워드즈 엘리자베스의 저술(Edwards 1992) 또한 이러한 역사적 시기의 구분의 타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와 함께 사진인류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조아나 웨러는 이 시대에 인류학적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사진들을 ‘민족지 사진’(ethnographic photography)이라 부르고, 이를 “19세기의 독특한 장르”(Scherer 1990: 135)였다고 말하고 있다. 웨러가 말한 ‘민족지 사진’은 본 논문에서 사진인류학 연구의 첫 번째 유형으로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진’에 대한 연구와 그 내용이 중첩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민족지 사진’이라는 말 대신 이 시대에 생산, 소비된 사진 장르를 통칭하여 ‘역사적 사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 이유는 ‘민족지 사진’이라는 용어에는 ‘민족지 영화’의 경우처럼 전문적인 인류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사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족지 영화’의 성격과 범위 또한 인류학계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칼 하이더(Heider 1976: 45)는 민족지영화를 정의내리면서 ‘민족지적’(ethnographic)이라는 말을 ‘인간에 대한’ 의미로 해석하고 민족지영화를 인간에 관한 영화를 총칭하는 말로 사용하였으며, 심지어 상업영화도 민족지영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정반대로 제이 루비(Ruby 1975)와 같은 학자들은 인류학적 연구방법론과 시각을 담고 있는 영화만을 ‘민족지영화’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민족지영화’를 보는 시각은 제이 루비처럼 엄격한 학문적 기준에 따라 민족지영화를 좁게 규정하는 시각과 칼 하이더와 같이 느슨하고 폭넓게 보는 시각 사이에서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제이 루비의 견해가 옳다고 보고, ‘민족지 사진’이라는 용어는 본 논문에서 두 번째 연구의 유형으로 다룰, 말리노프스키, 보아즈, 마가렛 미드와 같은 전문적인 인류학자의 사진 작업에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인류학적 탐구를 위해 만들어진 사진이나 인류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사진을 ‘역사적 사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단,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사진의 수집, 아카이브, 박물관에 관한

기술적인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앞서 밝힌 대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사진은 주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인류학적 탐구와 관련하여 많은 사진이 생산되고 소비되었다. 하지만, 인류학자나 사회학자가 이러한 역사적 사진에 대해 학문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Edwards 1992: 3). 역사적 사진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들을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들 연구자들은, 역사적 사진의 분석과 연구는 사진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사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의 이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앨란 세쿨라(Sekula 1984: 37)가 말한 것처럼, 사진은 불완전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진 메시지의 의미는 필연적으로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영상인류학의 이론 정립에 공헌한 솔 워스(Sol Worth)와 커뮤니케이션 학자 래리 그로스(Larry Gross) 또한 “사진의 의미는 기호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 있다”(Worth and Gross 1974: 30)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들은 사진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의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들 연구자들은 사진을 리얼리티의 객관적인 기록이나 미적인 창조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산물’(social artifact)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세 번째는 사진에 대한 연구를 텍스트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영상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 고찰한다. 이들에 의하면, 사진은 결코 중립적거나 객관적인 재현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생산하는 주체의 능동적인 의미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진인류학의 연구자들은 솔 워스(Worth 1981)가 주장한 ‘영상커뮤니케이션의 인류학’(anthropology of visual communication)의 방법론을 따르고, 사회과학에서의 사진연구는 ‘영상커뮤니케이션의 민족지’(ethnography of visual communication)의 시각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시각에서 사진의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사회적 과정’을 사회적 맥락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솔 위스는 주장하였다.

쉐러(Scherer 1990: 136)는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적인 사진의 인류학적 연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5개의 항목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1) 사진 자체의 연구 및 다른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 (2) 사진의 기술적인 제약이나 관습을 포함한 사진의 역사에 대한 연구 (3) 사진가의 의도 및 사진이미지가 창출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 (4) 사진에 찍힌 대상의 연구 (5) 사진의 사용 및 사진과 관련된 역사적 증거의 연구. 이 같은 쉐러의 연구방법론은 앞으로 역사적 사진 연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역사적 사진에 대한 연구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역사적 사진의 연구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연구유형은 인종측정학(anthropometry)과 관련된 사진의 연구이다. 19세기 말 서구에서 사진은 다양한 인종의 체형을 측정, 기록, 유형화하는 인종측정학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일명 ‘(인종의) 유형사진’(type photography)라고 불리던 사진들은, 당시 서구문명의 전파로 많은 인종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인류학자들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으며, 빠르게 사라지는 자원을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유형사진’의 연구를 통해 구제인류학적 사고와 당시에 유행했던 생물학적 진화론 및 사회적 진화론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엘리자베스 애드워즈의 연구(Edwards 1990)에 따르면, 신체의 ‘유형’을 기록한 사진들은 사진의 과학적인 객관성에 대한 믿음과 관습의 맥락을 기초로 인종의 유형을 수학적으로 측정, 계산하고 비교함으로써 타자를 분류하고, 정의 내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프랭크 스펜서(Spencer 1992)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19세기 말의 인종측정학과 사진의 관계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하고 있다. 인종측정학과 관련된 크리스토퍼 피니(Pinney 1990)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인도는 인종측정

학의 산실이었으며, 당시 사진전문가들은 부족 규모의 큰 집단이나 ‘유형’에 관한 사진, 복장 및 신체적 자세 등과 같이 외부인들이 쉽게 식별 가능한 문화적인 상징들을 주로 촬영했다고 한다. 피니는 비(非)서구인의 모습과 이국적인 요소들을 상징적으로 유형화한 사진의 연구를 통해 사진이 어떻게 식민지인들을 기술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에 대한 유럽인들의 낭만적인 판타지와 유럽 지식인들의 진화론적 가설을 읽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 사진연구의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인류학적 주제를 다룬 ‘사진가’에 대한 연구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인류학자, 다큐멘터리 사진가 및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인류학적 탐구를 위해 사진을 다방면에 이용하였다. 이미지메이커로서의 사진가의 작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진가의 인류학적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선입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라 잭니스의 연구(Jacknis 1990)는 19세기 말 아메리카 원주민의 삶과 문화를 기록하였던 민족학자 제임스 무니(James Mooney)의 사진 작업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무니는 연구 집단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정보제공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서뿐 아니라, 민족지적 아젠다를 추구하고 문화적인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사용했다고 한다. 둘째로 수잔 크로우즈(Krouse 1990)는 20세기 초 다큐멘터리사진가로 활동하였던 조셉 디슨(Joseph Dixon)의 ‘사라지는 종족’의 사진에 대한 연구에서 디슨이 촬영한 낭만적인 인디언의 사진이미지는 당시 사라질 운명에 처한 ‘고귀한 인디언’에 대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아메리칸 인디언문화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집착은 디슨이나 당시 사진과 영화를 통해 아메리칸 인디언을 지속적으로 기록한 애드워드 커티스(Edward Curtis)와 같은 사진가들에 의해 강화되었다고 한다. 한편 레이 루비(Ruby 1985)는 20세기 초 펜실베이니아주의

아마추어 사진가였던 프란시스 쿠퍼(Francis Cooper)의 삶과 작품을 통해 초기 미국사진의 사회문화사를 고찰하고 있다. 1890년에서 1910년에 걸쳐 미국의 사진계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는데, 프란시스 쿠퍼의 사진은 이러한 근대 사진의 역사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루비는 설명하고 있다. 당시 미국에서는 사진의 기술이 단순화되면서 아마추어 예술사진가 뿐 아니라 가족사진이나 일상의 삶을 기록하려는 스냅사진가가 출현했다. 루비에 의하면, 1890년대와 1910년대에 필라델피아와 펜실베이니아주의 농촌에서 사진 작업을 한 쿠퍼는 이러한 미국초기 사진 역사의 변화기의 증인이자 참여자였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타자의 재현’과 관련된 연구이다. 이들은 주로 유럽의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만들어진 사진에 대한 연구와 아메리칸 인디언의 재현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로 크리스트로 기어리(Geary 1988, 1990)의 카메룬의 식민지 사진에 대한 논문을 꼽을 수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독일 식민지였던 서아프리카의 카메룬의 바뎀(Bamum)에서 만들어진 역사적 사진에 관한 그녀의 연구는 어떻게 사진을 통해 식민주의가 시각적으로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의 단면을 보여준다. 즉, 기어리는 과거 바뎀의 사진연구를 통해, 카메룬을 지배했던 독일인들이 식민지 안에서 보고자 했던 것들이 어떻게 사진에 의해 시각적으로 구성되고 강화되는지 고찰하고 있다. 기어리는 이 논문에서 역사적 사진의 연구방법론으로서 다큐멘터리 양식과 성찰적 양식을 설명하면서 사진연구를 위해 두 가지의 방법론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연구방법론은 앞으로의 역사적 사진연구의 분석틀로서 유용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다큐멘터리 양식(documentary mode)은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진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언으려는 연구방식을 말한다. 반면, 성찰적인 양식(reflexive mode)은 사진가의 의도를 연구하거나 사진을 역사, 문화,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연구방식이다. 즉, 성찰적 양식에서는 사진을 만든 생산자의 연구에 중점을 두면서 사진을 사진가의 생각이나 선입관의 산물로서 본다. 그녀의 연구에 의하면, 카메룬에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사진(선교사의 사진기록, 문화인류학자 및 형질인류학자의 ‘유형’ 사진, 군인이나 식민지관료의 사진, 상업적인 누드사진, 스튜디오 인물사진 등)은 당시 사진작업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직업과 목적 및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바뎀의 사진은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인들의 이야기이며, 바뎀에 대한 이미지의 형성에는 사진가의 시각과 선입견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진은 사진생산자의 문화 및 역사의 산물이자 타자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사진에 담긴 대상의 문화 뿐 아니라 사진을 만드는 사람의 문화와 선입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어리는 주장한다.

기어리의 성찰적 양식을 역사적 연구에 적용한 또 다른 사례로는 말렉 알루라(Malek Alloula)와 니콜라스 몬티(Nicolas Monti)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알루라(Alloula 1986)는 북 아프리카 알제리의 여성에 관한 역사적 사진(사진엽서)의 연구에서 이들 사진은 알제리 여성의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북아프리카에 대해 가져왔던 유럽인들의 환상을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몬티(Monti 1987)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사진에 나타난 아프리카사람들의 재현과 유형화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북아프리카의 식민지에서 생산된 역사적 사진은 생산자와 대상 간의 불균형적인 권력과 지배의 관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찰적 양식의 연구들은 사진이 미지를 통해 어떻게 ‘아프리카’가 시각적으로 구성되고, 아프리카 사진가들이 어떻게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들에 관한 스테레오타입을 만들고 이를 강화하고 영속화시켰는지 보여주고 있다. 한 마디로, 이러한

연구는 어떻게 사진을 통해 문화적 타자에 대한 지식이 구성되고 생산되는가에 대한 인류학적 논의와 타자에 대한 서구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타자의 재현과 관련된 또 다른 예로서 패트리시아 앨버스와 윌리엄 제임스(Albers and James 1983, 1984, 1985, 1988, 1990)의 사진엽서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Private and Public Images: A Study of Photographic Contrasts in Postcard Pictures of Great Basin Indians, 1898-1919”(1990)에 따르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대중적인 매체로 자리 잡았던 사진엽서는 다른 사진매체처럼 기록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진가들이 타자를 이미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연구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존 버거(Berger 1980)의 ‘사적인 사진’(private photography)과 ‘공적인 사진’(public photography)의 개념을 차용하여 미국의 사진엽서에 나타난 인디언의 재현방식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들은 존 버거의 모델을 따라 1898년에서 1919년에 걸쳐 만들어진 사진엽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아마추어 사진가들이나 마을의 사진가들에 의해 지역적으로 제작되고 소비되는 ‘사적인 사진엽서’의 인디언의 이미지는 인디언의 평범한 포즈나 일상생활의 모습을 담고 있을 뿐, 인위적으로 인디언의 삶을 낭만적으로 묘사하거나 정형화하지 않는다. 반면, 특정지역을 벗어나 일반인을 위해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공적인 사진엽서’는 이른바 ‘인디언’이라는 판에 박힌 시각장르에 맞추기 위해 인디언의 모습과 삶을 정형화하고, 이를 위해 전형적인 인디언의 의복이나 장식을 사용하는 등 하나의 ‘인디언’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앨버스와 제임스의 사진엽서와 재현에 대한 논의는 과거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었던 사진엽서의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사적인 사진’과 ‘공적인 사진’의 개념 또한 이러한 역사적 사진의 분석을 위한 유용한 이론틀이 될 수 있다.

3. 민족지 사진(ethnographic photography): 인류학 연구 수단으로서의 사진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민족지 사진’(ethnographic photography)이란 “인류학적인 진술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류학자에 의해, 또는 인류학자의 지도하에 촬영된 사진”(Ruby 1976: 5)을 말한다. 인류학자에 의한 사진 작업은 민족지영화의 분야보다 그리 발달이 되지 않았지만, 초기의 인류학의 역사에서 인류학적 연구를 위해 사진을 사용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말리노프스키, 보아즈, 마가렛 미드의 사진 작업과 이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말리노프스키의 사진 작업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마이클 영의 연구(Young 1998)는 영국의 런던경제학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말리노프스키의 출판물 및 현지조사노트 등의 아카이브 자료를 기초로 1915에서 1916년에 걸친 말리노프스키의 트로브리안드(키리위나)에서의 현지조사와 사진 작업을 재구성한 것이다. 마이클 영의 연구목적은 말리노프스키의 현지조사에 대한 성찰적인 시각과 트로브리안드의 시각적 민족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이클 영은 말리노프스키가 현지조사에서 촬영한 사진 가운데 약 200장의 사진을 선택하여 사진과 함께 트로브리안드의 민족지를 14개의 소주제(주술, 여성의 영역, 장례식, 카누, 쿨라 탐구 등)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말리노프스키, 마이클 영과 그의 제자인 디깁스 리나의 이야기를 통해 사진의 역사적, 민족지적 배경과 원주민의 시각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준다. 영에 의하면, 말리노프스키의 사진 작업은 리얼리스트 담론을 보여주며, 당시의 많은 인류학자와는 달리 원주민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말리노프스키는 사진을 참여의 수단이 아니라 관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터렌스 라이트의 글(Wright 1991)은 그리 이론적이지는 않지만, 말리노프스키와 비슷한 시기에 인류학적 사진 작업을 하였던 다이아몬드 제니스(Diamond Jenness)의 사진과 말리노프스키의 사진을 비교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라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은 지역(멜라네시아)에서 연구를 하였지만, 1914년 이전에 사진 작업을 하였던 제니스와 1914년 이후에 연구 활동을 하였던 말리노프스키의 사진 작업의 성격은 명확히 구별된다고 한다. 한 마디로 제니스는 당시 옛 이론이 된 진화주의와 19세기의 민족지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불과 2년 후에 촬영된 말리노프스키의 사진들은 새롭게 등장한 사회인류학의 시각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말리노프스키의 사진은 ‘참여관찰’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는 반면, 오로지 진화주의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였던 제니스의 사진에서는 말리노프스키의 경우와는 달리 연구대상에 대한 친밀감이나 참여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라 잭니스의 연구(Jacknis 1989a)는 프란츠 보아즈의 인류학 작업과 사진과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다. 잭니스는 보아즈의 사진 작업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면서 보아즈의 첫 번째 현지조사부터 마지막 현지조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사진과 영화 매체가 인류학적 연구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보아즈는 구제 인류학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신체적) 유형’(type)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현지조사에서 촬영한 사진을 박물관 전시에 활용함으로써 인류학과 관련된 체계적인 사진전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아즈는 본 논문의 뒷부분에서 살펴볼 ‘사진인터뷰기법’을 통해 원주민의 예술문화의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특히 1897년의 보아즈의 연구는 현지사진을 수록한 최초의 민족지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이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보아즈는 인류학 연구에 사진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선구자적인 인물이자 영상인류학의 창시자로 보기도 한다. 제이 루비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보아즈는 “인류학자의 현지경험과 규범적인 부분을 사진 및

영화로 기록하는데 공헌을 하였으며, 그에 대해 영상인류학의 아버지 같은 인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니다”(Ruby 1980: 7). 이처럼 인류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사진이나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를 활용하였던 보아즈의 작업은 당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적지 않은 초기 영상인류학자를 배출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당시 영상인류학의 이론적 정립에 많은 공헌을 한 마가렛 미드이다. 제이 루비는 프란츠 보아즈와 마가렛 미드와의 학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보아즈는 미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선구자로 생각해야 한다”(Ruby 1980: 11)고 말하고 있다.

마가렛 미드는 영상인류학이 어떻게 인류학에 공헌을 할 수 있고, 특히 사진이 인류학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 최초의 인류학자로 손꼽힌다. 마가렛 미드는 1925년 사모아에서의 첫 번째 현지조사를 위해 카메라를 가져갔을 만큼 사진의 이용에 적극적이었다. 그 후 1936~1938년,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과 함께 한 발리의 현지조사에서는 미국 인류학의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사진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가렛 미드와 그레고리 베이트슨(Mead and Bateson 1942)의 발리 연구의 결과물인 『발리사람들의 성격』(*Balinese Character*)은 그녀의 대표적인 사진민족지이자 인류학적 사진 분석의 모델로 남아 있다. 마가렛 미드에 의하면, 과학적인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학문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수집된 것이어야 하며, 이렇게 수집된 영상 자료들은 정확성과 증립성을 제공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인류학은 인문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다. 마가렛 미드는 발리 현지에서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약 25,000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발리사람들의 성격』은 이 가운데 약 100매의 사진과 함께 사진에 대한 민족지적 분석을 시도한 사진민족지로 손꼽힌다. 이처럼 마가렛 미드는 사회과학을 위한 사진기록의 중요성을 확신하였으며, 『발리사람들의 성

격』은 사진이 단지 예시를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인류학적 연구의 주된 데이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마가렛 미드의 사진연구에 대한 연구에서 이라 잭니스(Jacknis 1989b) 또한 여러 면에서 마가렛 미드의 사진 작업을 영상인류학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오늘날까지 이에 견줄만한 작업은 거의 없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라 잭니스의 논문은 마가렛 미드가 『발리사람들의 성격』과 1951년에 발표한, 발리에 관한 4편의 영화와 한 편의 사진민족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마가렛 미드의 또 다른 사진집인 『성장과 문화』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마가렛 미드의 사진 작업에 대한 또 다른 저술로는 앤드류 라코프(Lakoff 199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특히 『발리사람들의 성격』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성장과 문화』(*Growth and Culture*)(Mead and Macgregor 1951)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동성장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인 『성장과 문화』 또한 사진이 단순히 민족지적 예시의 수단이나 문화적인 분석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성장과 문화』는 『발리사람들의 성격』과는 분석적인 방법이 다르다. 이 책은 발리에서 촬영된 25,000여 장의 사진들 가운데 일부 사진을 선택하여 서로 병치시킴으로써 발리 어린이들의 신체발달과 정신구조의 상관관계를 밝히려 하였다. 마가렛 미드는 당시 미국의 아동심리학자인 아놀드 게젤(Arnold Gesell)과 프란세스 일그(Frances Ilg)가 미국 아동의 발달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사진을 사용한 예를 참조하면서 이를 발리의 연구에 응용하였다. 마가렛 미드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두 개의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잭니스는 설명한다. 첫째 특정한 문화의 정신적인 구조에 대한 진단은 그 사회구성원의 신체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분석은 신체(신체운동행위)의 사진기록에서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마가렛 미드에 의하면, “하나의 개별적인 사진은 거의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간주되지만, 두 개의 상이

한 사진의 병렬을 통한 연구는 과학적인 일반화를 향한 진보”(Mead and Bateson 1942: 53)이다. 즉, 그녀는 사진의 시퀀스를 아이의 성장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마가렛 미드의 사진 작업은 시대를 앞선 것이며 다른 인류학자에 의해 많은 찬사를 받았으나, 아쉽게도 이를 본받은 연구는 이어지지 않았다(Collier 1967: 5-6).

4. 사진문화연구

세 번째 유형은 사진문화(culture of photography)에 대한 연구이다. 먼저 사진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방법론을 알기 위해 제이 루비의 논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루비(Ruby 1981)는 솔 위스가 주장한 ‘영상커뮤니케이션의 민족지’의 시각에서 사진문화를 연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루비는, 사진문화의 분석 단위는 사진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사진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사회적 맥락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존스’(Johns)라는 한 가상적인 마을의 사진문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 마을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사진과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사진 및 사진문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루비는 일반 사람들이 촬영한 스냅사진에서부터, 결혼사진, 고등학교 졸업사진과 신문, 잡지, 카터로그, 달력의 사진, 학교의 슬라이드 사진, 전시 사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을의 사진문화를 생산과 소비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존스’ 마을에 존재하는 사진의 종류를 6가지 영역, 즉 전문가에 의해 생산된 사진, 취미사진가의 사진, 공공 전시를 위해 만들어진 사진, 역사적인 사진, 교육에서 사용하는 사진, 가족사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루비의 논문은 하나의 가상적인 제안이지만, 오늘날에도 한 마을이나 사회집단의 사진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다.

사진문화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의는 편의상 사진의 생산주체에 따라 존 버거의 ‘사적인 사진’과 ‘공적인 사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잡지의 광고사진, 관광산업과 관련된 사진 등은 보다 상업적이고 산업적인 측면이 강한 사진 장르라 할 수 있으며, 가족 사진, 스냅사진, 결혼사진, 여행사진 등은 보다 개인적인 측면이 강한 사진장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산업적인 측면의 사진문화를 다룬 연구로는 캐서린 릿츠와 제인 콜린스(Lutz and Collins 1993)의 “*Reading National Geographic*”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제이 루비처럼 영상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기초를 두고 정기간행물인 “*National Geographic*”의 사진문화를 생산자, 생산품(즉, 사진), 수용자(독자)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먼저 생산의 측면에서는 “*National Geographic*”을 발행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National Geographic Society)의 사진사, 편집자 등 스텝과의 인터뷰를 통해 잡지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의 발상, 기획, 촬영, 사진의 프린팅, 사진의 선택, 레이아웃 등에 이르기까지 잡지의 전 생산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두 번째로 문화적 산물로서의 생산품, 즉 텍스트로서의 사진의 연구를 위해서는 사진이미지의 구조와 내용을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은 1950~1986년에 걸쳐 “*National Geographic*”에 수록된 6백여 장의 사진을 선택하여 비(非)서구(제3세계)의 재현 문제를 지역별(나라별), 또는 인종, 젠더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끝으로 수용자 측면에서는 사진의 구조와 독자들의 ‘보는 방식’(looking practice)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독자들의 ‘보는 방식’은 매우 관습화되어 있으며, 잡지에 재현된 제3세계나 제4계의 사람들은 이러한 관습화된 시선을 위해 이국적으로 묘사되고, 이상화(理想化)되며, 성적(性的) 대상화된다고 한다. 이들 연구는 텍스트 분석에 치우친 미디어 연구를 넘어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미디어의 재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진문화의 연구를 위한 하나의 이론적 모델이 될 수 있다.

리차드 샬펜과 마이 무루이(Chalfen and Murui 2001)는 다른 시각에서 일본의 ‘프리쿠라’(Purikura)²⁾라는 사진문화를 고찰하면서 프리쿠라의 생산과 소비의 측면을 일본청소년의 문화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다. 현대일본의 사진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 논문 또한 기본적으로 솔 위스의 ‘영상커뮤니케이션의 민족지’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들은 프리쿠라 사진의 탄생, 기술의 발전, 이미지 내용, 장식 프레임, 사진의 사용과 사회문화적 기능의 연구를 통해서 개인과 사회, 그리고 비즈니스와 예술이 연결되는 사회문화적 접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프리쿠라의 사진문화를 통해 일본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 멤버십, 그리고 대중문화의 패턴, 소비주의, 성차(性差), 청소년 문화, 대인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고 본다.

여행 및 관광과 관련된 사진문화 또한 상업적인 사진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엘버스와 제임스(Albers and James 1988)는 여행사진문화의 연구방법론에 대해 고찰하면서 포스터, 슬라이드, 스냅사진, 사진엽서, 안내책자의 사진, 기념소책자, 여행 잡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진이미지를 통해 여행(관광)과 관련된 사진문화를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여행사진은 관광의 경험과 관광환경을 밝히기 위한 부차적인 자료로 사용되거나, 또는 관광과 관련된 사진적 재현의 형태, 의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일차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후자의 연구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은 관광사진을 이미지 조작의 주요한 힘으로 보았다. 즉, 관광사진과 다른 영역의 사진과의 차이점은 사진 생산의 특정한 형태가 아니라 사진이 선택되고 조합되고 상징화되는 방식, 즉 주제 및 대상의 선택과 재현되는 방식에

2) ‘print club’의 일본어 표현. 국내에서는 ‘스티커사진’이라는 이름으로 한 때 유행한 적이 있다.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이 논문에서 사진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방법론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과 기호학적 분석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운 분석방법으로서 비판적 분석(critical analysis)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 마디로 비판적 분석 방법론은 관광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사진이미지의 생산 및 맥락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이들의 연구는 관광에서의 민족의 재현문제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즉, 그들은 관광사진에서 제시되는 민족적 모티브의 성격, 이미지와 관광사진의 내용 및 구성의 관계, 사진이미지의 ‘읽기’와 해석, 사진이미지의 생산과 관련된 문제로서 관광사진의 생산에 누가 관련되어 있고 어떠한 종류의 영상적 관습이 차용되는가, 이러한 사진이미지가 한 지역의 관광개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민족성과 관련된 관광사진의 시각화와 초국가성의 경향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관광사진과 민족의 재현의 문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릭 코헨의 연구(Cohen 1993)는 원주민의 관광이미지에 대한 사례와 함께 또 다른 관광사진의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관광사진의 연구방법론으로 ‘외재적(extrinsic) 연구방식’과 ‘내재적(intrinsic) 연구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외재적 연구는 사진이미지와 리얼리티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접근 방식을 말한다. 즉 외재적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서 사진 이미지 자체보다는 사진이미지의 재현(리얼리티의 반영, 과장, 왜곡 등)에 관심을 가진다. 반면, 내재적 연구는 사진이미지 자체에 들어 있는 이미지의 스타일, 모티브, 구조, 그리고 특히 메시지에 내재된 특성에 초점을 두는 연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후자의 연구방식이 좀 더 최근의 접근방식이며, 문화인류학적 연구나 기호학적 연구에서 보다 많이 사용되는 연구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화에 대한 다른 유형의 연구로는 이른바 ‘사적인 사진’ 또는

‘홈 모드’(home mode) 사진문화에 대한 연구이다. 리차드 샬펜(Chalfen 1987)의 이른바 홈 모드 영상은 개인 또는 가족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영상을 말한다. ‘홈 모드’ 사진과 영상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 해온 샬펜에 의하면, 홈 모드 사진, 즉 가족사진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이며, 개인의 진술이자 삶의 해석이다. 또한 가족사진은 개인적인 미디어이자 사회적인 미디어라고 본다. 왜냐하면 가족사진은 개인적인 기억, 또는 기록이지만, 개인의 역사는 이 보다 넓은 범위의 내러티브, 즉 커뮤니티, 종교, 민족성, 국가, 젠더, 계급, 권력 등의 논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사진은 가족구성원에 의해 만들어지고 공유되지만 산업적인 측면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즉, 가족사진은 카메라, 필름, 인화, 앨범 등과 관련된 산업, 기술(오늘날의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 사진 산업 등) 등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사진은 개인이나 가족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실제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매스 미디어와 구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샬펜은 가족사진문화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앞서 설명한 솔 위스의 영상커뮤니케이션의 모델에 따라 가족사진의 생산과 소비의 행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사진이나 앨범의 사진텍스트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는 방식이다. 샬펜의 “*Snapshot Versions of Life*”(1987)와 “*Interpreting Family Photography as Pictorial Communication*”(1998)은 첫 번째 접근방법을 보여준다. 샬펜은 이 논문에서 텔 하임즈(Hymes 1974)의 ‘커뮤니케이션의 민족지’(ethnography of communication) 모델을 차용하여 가족사진의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사회적 행위와 활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즉 그는 가족사진과 관련된 가족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계획, 촬영, 인화, 편집, 전시라는 행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를 참가자, 배경, 주제, 메시지, 코드라는 구성요소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크리스토퍼 무셀로(Musello 1980) 또한 솔 위스의 영상커뮤니케이션 방법론과 리차드 샬

펜의 가족사진방법론을 채용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가족사진에 대해 연구하였다. 무셀로 또한 가족사진을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사회적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그 성격을 밝히려고 하였다. 즉, 그는 누가, 어떤 맥락에서, 무슨 목적으로, 어떤 사회적, 문화적 규칙 및 관습, 또는 제한 하에서 가족사진을 생산하고 소비하는지 연구하였다. 샬펜이나 무셀로의 가족사진에 대한 연구는 영상커뮤니케이션의 민족지적 접근을 통한 사진문화 연구의 한 실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샬펜(Chalfen 1991)의 “*Turning Leaves: The Photography Collections of Two Japanese American Families*”는 가족사진에 대한 또 다른 접근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홈 모드’의 사진문화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는 위의 연구와 비슷하지만, 앞 연구와는 달리 사진의 촬영과 소비를 둘러싼 가족구성원들의 활동의 영역이 아니라 텍스트로서의 가족 앨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샬펜은 먼저 가족사진에 담겨 있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은 당연한 사실로 간주되어 거의 심층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가족사진의 연구를 통해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 정체성, 민족성에 대한 새롭고 중요한 사회문화적인 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의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의 가족사진앨범을 통해 가족사와 미국사회에서의 사회문화적 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즉 그는 이 논문을 통해 두 이민가족이 사진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밝힘으로써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 가족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제이 루비(Ruby 1984, 1995)는 죽음과 관련된 미국인들의 사진 연구를 통해 다른 시각에서 가족과 관련된 사진문화를 다루고 있다. 이는 샬펜이 말한 홈 모드의 가족사진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 한다. 한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사후(死後) 사진은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상업적인 사진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생산되고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소비

되는 유형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루비는 죽음 및 슬픔, 그리고 장례식의 시각적 재현은 사진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관습들은 일반적으로 사진학자나 죽음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에 의해 간과되었거나 잘못 해석되었다고 주장한다. 루비는 사후 사진에 대한 역사적, 민족지적 분석이 가능하며, 죽음과 사진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이들 주제를 각각 연구하는 것보다 죽음이나 사진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준다고 주장한다. 루비는 사후 사진을 문화적인 의미를 갖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보고, 사후 사진의 사진가의 의도 및 사회문화적 맥락을 검토함으로써 19, 20세기 미국의 사후 사진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5. 사진유도기법(Photo-Elicitation)

본 장에서 살펴 볼 ‘사진유도기법’(photo-elicitation), 또는 ‘사진인터뷰기법’에 관한 논의는 앞의 세 가지 연구유형과 성격이 다르다. 사진유도기법은 마치 과학자들이 과학적 연구를 위해 실험기자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인류학적 연구의 도구로 사진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유도기법은 한 마디로 인류학적 인터뷰를 위해 사진을 사용하거나, 사진을 통해 정보제공자의 논평이나 설명을 유도하고 연구의 의미에 대해 함께 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사진유도기법의 원리는 사진뿐 아니라 영상매체 및 그림과 같은 다른 유형의 시각매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사진매체에 국한하여 논하기로 한다. 사진유도기법은 인류학의 초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인류학과 사회학 분야의 연구에 골고루 사용되었으나, 양적으로나 연구의 다양성에서 보자면 사회학, 특히 이른바 영상사회학(visual sociology) 분야에서 보다 많이 시도된 연구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류학과

사회학 분야에서의 사진유도기법에 대한 연구는 주제나 소재 면에서 서로 중첩되는 경우가 많고, 사진유도기법은 앞으로 인류학의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인류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시도된 사진유도기법 연구의 유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진유도기법’(photo-elicitation)이란 용어는 1957년 인류학자인 존 콜리어(John Collier)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Harper 2002: 14). 하지만 사진을 이용한 인터뷰기법은 그 이전에도 인류학자에 의해 사용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대로 프란츠 보아즈는 현지조사에서 원주민의 예술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사진인터뷰기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Jacknis 1989a). 그 후 사진유도기법은 존 콜리어의 연구(Collier 1957, 1967, 1987; Collier and Collier 1986)를 통해 알려지고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³⁾

사진유도기법의 연구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사회학과 인류학에서 사진유도기법이 사용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더글라스 하퍼(Harper 2002)에 의하면,⁴⁾ 사진유도기법은 4가지 영역, 즉 사회조직, 사회계급 및 가족에 관한 연구(Calderola 1985; Steiger 1995; Barndt 1980; Bunster 1978), 커뮤니티나 역사적 민족지에 대한 연구(Suchar 1988, 1992; Suchar and Rotenberg 1994; Van der Does et al. 1992; Wagner 1979; Harper 2001; Chiozzi 1989), 정체성의 연구(Kenney 1993; Blinn and Harrist 1991),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나 인류학적 문화연구(Craig et al. 1997; Harper 2000; Kretsedemas 1993; Snyder 1990; Stiebling 1999)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의 연구로는 스타이저(Steiger 1995)와 분스터

3) 사진유도기법의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Collier and Collier(1986), Wagner(1979), Harper(1987a, 1988, 2000, 2002)를 참조할 것.

4) 사진유도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목록에 대해서는 Harper(2002)를 참조할 것.

(Bunster 1978)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스타이거는 스위스의 가정에서 처음 태어난 아이가 가족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사진촬영과 인터뷰를 병용하였다. 그는 어떻게 사회학적인 개념들이 사진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진유도기법을 통해 첫째 아이를 가진 스위스 어머니들의 사회적 존재의 성격을 밝히려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환경(집의 내부 및 외부 사진),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행위, 어머니 자신의 인물사진을 사진으로 담고 이를 심층인터뷰에 이용하였다. 스타이거는 이를 통해 첫 번째 어린 자녀를 가진 스위스의 부부들이 어떻게 육아, 가사, 수입을 위한 노동의 책임을 공유하는지 밝히려 하였다. 한편, 분스터는 폴라로이드 사진과 사진유도기법을 이용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노동여성을 연구하였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이른바 ‘말하는 사진’(talking picture)을 통해 페루의 리마 시장에서 일하는 프로레타리아 여성들이 어떻게 저개발국가의 자본주의의 구조에 적응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그는 시장 전경과 길거리 행상, 가판대를 가진 여성들, 공장노동자, 가정부 등의 일하는 모습,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집안일 모습, 그리고 여성들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3,000여 장의 사진들 가운데 120장의 사진을 선별하여 ‘인터뷰 키트’, 즉 ‘말하는 사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사진집을 리마 시장에서 일하는 다른 50명의 여성들에게 보여주며, 프로레타리아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노동과 가정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는지 밝히려 하였다.

두 번째 유형의 연구 가운데 먼저 수차르(Suchar 1992)는 사진유도기법을 통해 미국의 시카고에 위치한 상류 커뮤니티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는, 커뮤니티의 상류사회화 과정이 주민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적인 장소나 물질적인 대상에 반영되며, 사진은 이러한 과정을 담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사진을 통해 주민들의 가치관, 취향, 태도, 열망, 정체성 등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최근 정착한

사람들, 10여 년 정도 살아온 사람들, 원주민으로 나누어 사진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커뮤니티나 사적인 공간 및 소유물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비교연구하면서 계급문화와 관련된 상징적인 주제를 밝히려 하였다. 반데어 도스를 비롯한 공동연구자들(Van der Does et al. 1992)은 도시사회학과 관련된 연구에 사진유도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들은 대중미디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위치한 저소득 커뮤니티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여 주민들이 어떻게 물질적인 환경 및 사회적인 상호관계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들 스스로 커뮤니티의 모습과 생활상을 담은 사진을 찍은 뒤, 사진유도기법을 통해 인종적으로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이 인종간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한편 더글라스 하퍼(Harper 2001)는 자신이 거주하는 뉴욕 북부의 한 지역에서 어떻게 노동의 형태가 변화되었는지 밝히기 위해 사진인터뷰기법을 이용하였다. 그는 비정부기관인 뉴저지 주 스탠더드 오일 회사(Standard Oil of New Jersey)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및 그 후의 미국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후원했던 다큐멘터리사진 프로젝트의 아카이브 사진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후 농업형태의 변화를 포착하려 하였다. 그는 주민들에게 다큐멘터리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자신들의 활동이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는지 밝히려 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을의 역사를 재구성하려 하였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케니(Kenney 1993) 및 브린과 해리스트(Blimm and Harrist 199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케니는 사진유도기법을 통해 중국과 미국 대학생의 자화상 및 정체성의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먼저 대학생들 스스로 35mm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자화상을 기록하고 사진에 담긴 의미를 진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타인에 대한 지향성, 물질적인 대상이나 문화와 관련된 생각을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브린과 해리스트는 미국에서 재입학 여대생이 되는 것에

대해 여대생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기 위해 즉석사진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재입학 여대생들이 집과 학교에서 각각 찍은 사진의 종류와 주제의 빈도수를 분석하여 가정과 학교에 대한 여대생들의 생각과 역할의 갈등을 알아내려 하였다.

네 번째 유형 가운데 크랙(Craig et al. 1997)과 크레체데마스(Kretsedemas 1993)는 사진유도기법을 통해 광고에 담긴 사회문화적 의미를 밝히려 하였다. 먼저 크랙은 최근 중상류층 소비자로서의 미국계 흑인을 모델로 한 광고사진의 분석을 통해 미국계 흑인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의미를 밝히려 하였다. 이 연구는 한 흑인지역에 위치한 이발소의 고객에게 흑인모델의 광고사진을 보여주고 인터뷰를 통해 흑인의 상업적인 재현에 대해 흑인들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종교, 교육,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미디어 및 사회적인 계급에 대한 담론들이 독자들의 광고 해독을 변화시키고 왜곡하고 강화하는지 보여주었다. 한편, 크레체데마스는 의류광고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인종과 개인의 정체성의 관계를 밝히려 하였다. 이 연구는 34명의 연구 대상자에게 의류 광고를 보여주고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광고를 해독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피부의 색깔, 즉 흑백의 구분이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류학 및 사회학에서 사진유도기법을 위해 사용되는 사진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사진을 직접 찍어 인터뷰에 사용할 수 있고, 정보제공자가 찍은 사진이나 가족사진과 같이 정보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진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잡지의 사진이나 박물관의 아카이브 사진과 같은 기존의 사진을 이용할 수 있다. 사진유도기법의 실제 연구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연구자가 직접 찍은 사진(Harper 1987b), 정보제공자가 직접 찍은 사진(Blinn and Harrist 1991; Kenney 1993; Van der Does et al. 1992), 가족사진(Blinn 1988;

Schwartz 1992), 다큐멘터리사진(Suchar 1988, 1992; Suchar and Rotenberg 1994), 아카이브사진(Chiozzi 1989; Harper 2001), 광고사진(Craig et al. 1997; Harper and Faccioli 2000; Kretsedemas 1993)을 이용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진유도기법은 사진이미지를 인류학적/사회학적 연구나 논의의 중심에 둔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하지만 사진유도기법은 사진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통해 정보제공자의 논의를 유도하거나 정보제공자가 사진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개인적인, 또는 사회문화적인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분석한다. 사진유도기법은 인류학적 연구방법론으로서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진유도기법은 무엇보다도 인터뷰하는 사람과 인터뷰 대상자간의 커뮤니케이션적인 장벽을 없애주고 그들 간의 지리적, 문화적 거리감을 메워주며, 단지 언어를 사용하는 인터뷰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사진이미지는 잠재적인 기억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언어만을 사용하는 인터뷰기법보다 인터뷰대상의 시각이나 경험, 세계관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Harper 2002: 13). 하퍼(Harper 1993, 1998)는 이러한 사진유도기법을 일컬어 연구자보다 연구대상자의 권위에 중심을 둔다는 측면에서 “포스트모던적인 대화”라고 규정지었다.

6. 맺는말

본 논문은 ‘사진인류학’(anthropology of photography), 즉 인류학 분야의 사진연구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인류학적 사진연구를 위해 중요한 연구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인류학적 사진연구를 역사적 사진, 민족지사진, 사진문화, 사진유도기법의

4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로 크게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 번째 역사적 사진에 대한 연구에서는 역사적 사진연구를 위한 연구방법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연구유형을 인종측정학과 관련된 사진연구, 인류학적 주제를 다룬 ‘사진가’(인류학자, 다큐멘터리 사진가 및 아마추어 사진가)에 대한 연구, 비(非)서구세계의 ‘타자의 재현’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번째 민족지사진에 관한 연구에서는 말리노프스키와 보아즈의 사진 작업에 대한 연구 및 마가렛 미드의 사진민족지 『발리의 성격』과 『성장과 문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그녀에 작업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 사진문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진문화의 인류학적 방법론을 고찰하고, 사진문화를 산업적인 측면이 강한 사진 장르(『내소날 지오그래픽』, 일본의 프리쿠라, 관광사진)과 개인적인 측면이 강한 사진 장르(가족사진, 사후[死後] 사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끝으로 인류학적 연구를 위해 사진매체를 이용하는 사진유도기법, 즉 사진인터뷰기법의 역사를 고찰하고 인류학 및 사회학에서의 연구사례와 사진인터뷰기법의 방법론적 특징에 대해 다루었다.

사진인류학은 넓은 의미의 ‘시각/영상인류학’(visual anthropology)⁵⁾의 주요한 연구영역에 속한다. 서구에서 ‘시각/영상인류학’은 민족지영화, 사진 및 영화, 방송, 광고와 같은 영상미디어, 예술장르, 비(非)언어 커뮤니케이션 및 무용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사진과 민족지영화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각/영상인류학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사실을 반영하듯 사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또한 이론적 고찰이나 사례분석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의 연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본 논문은 추

5) 국내에서는 ‘visual anthropology’를 ‘영상인류학’으로 번역하면서 민족지영화와 관련된 연구로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으나, ‘visual anthropology’는 민족지영화뿐 아니라 사진, 영화, 방송 등 다양한 영상미디어에 대한 연구, 예술이나 비언어커뮤니케이션 및 신체언어, 무용 등의 시각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포함한다. 이 경우 ‘visual anthropology’는 ‘시각인류학’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후 사진인류학의 연구를 위한 이론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논문접수일: 2011년 4월 15일, 논문심사일: 2011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22일

참고문헌

Albers, Patricia C. and William R. James

1983 "Tourism and the Changing Photographic Image of the Great Lake India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00: 28-148.

1984 "Utah's Indians and Popular Photography in the American West: A View From the Picture Postcard," *Utah Historical Quarterly* 52(1): 72-91.

1985 "Images and Reality: Postcards of Minnesota's Ojibway People, 1900-1980," *Minnesota History* 49(6): 229-40.

1988 "Travel Photography: A Methodological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1): 134-58.

1990 "Private and Public Images: A Study of Photographic Contrasts in Postcard Pictures of Great Basin Indians, 1898-1919," *Visual Anthropology* 3(2-3): 343-366.

Alloula, Malek

1986 *The Colonial Harlem*,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Barndt, Deborah

1980 *To Change This House: Popular Education Under the Sandinistas*, Toronto: Between the Lines Press.

Benjamin, Walter

1968 *Illumination: Essays and Reflection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Berger, John

1980 *About Looking*, New York: Pantheon.

Blinn, Lynn

1988 “The Family Photo Assessment Process (FPAP): A Method of Validating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Family Social Identiti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9(1): 17-35.

Blinn, Lynn and Amanda Harrist

1991 “Combining native instant photography and photo-elicitation,” *Visual Anthropology* 4: 175-192.

Bunster, Ximena

1978 “Talking pictures: a study of proletarian mothers in Lima, Peru,” *Studies in the Anthropology of Visual Communication* 5(1): 37-55.

Calderola, Victor

1985 “Visual contexts: a photographic research method in anthropology,” *Studies in Visual Communication* 11(3): 33-55.

Chalfen, Richard

1987 *Snapshot Versions of Life*, Bowling Green: Popular Press,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1991 *Turning Leaves: The Photography Collections of Two Japanese American Families*, Albuquerque, NM: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1998 “Interpreting Family Photography as Pictorial Communication,” in Jon Prosser, ed., *Image-based Research. A Sourcebook for Qualitative Researchers*, London: RoutledgeFalmer Press. pp. 214-234.

Chalfen, Richard and Mai Murui

2001 “Print Club Photography in Japan: Framing Social Relationships,” *Visual Sociology* 16(1): 55-73.

Chiozzi, Paola

- 1989 "Photography and anthropological research: three case studies," in Robert Boonajer Flaes, ed., *Eyes Across the Water*, Amsterdam: Het Spinhuis. pp. 43-50.

Cohen, Erik

- 1993 "The Study of touristic images of native people, mitigating the stereotypes of a stereotype," in Douglas Pearce and Richard Butler, eds., *Tourism Research: Critiques and Challeng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36-67.

Collier, John Jr.

- 1957 "Photography in anthropology: a report on two experiments," *American Anthropologist* 59: 843-859.
- 1967 *Visual Anthropology Photography as a Research Metho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1987 "Visual anthropology's contributions to the field of anthropology," *Visual Anthropology* 1(1): 37-46.

Collier, John Jr. and Malcolm Collier

- 1986 *Visual Anthropology: Photography as a Research Method* (revised and expanded),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Craig, Robert, Philip Kretsedemas and Bruce Gryniewski

- 1997 "Picturing African-Americans: readers reading magazine advertisements," *Visual Sociology* 12(1): 28-58.

Edwards, Elizabeth

- 1990 "Photographing "Types": The Pursuit of Method," *Visual Anthropology* 3(2-3): 235-258.

Edwards, Elizabeth(ed.)

- 1992 *Anthropology and Photography: 1860-1920*,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Geary, Christraud M.

- 1988 *Images of Bamum: German Colonial Photography at the Court of King Njoya, Cameroon, West Africa, 1902-1915*,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e Press.
- 1990 "Impressions of the African Past: Interpreting Ethnographic Photographs from Cameroon," *Visual Anthropology* 3(2-3): 289-315.

Harper, Douglas

- 1987a "The visual ethnographic narrative," *Visual Anthropology* 1(1): 1-19.
- 1987b *Working Knowledge: Skill and Community in a Small Sho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88 "Visual sociology: expanding sociological vision," *The American Sociologist* 19(1): 54-70.
- 1993 "On the authority of the image: visual sociology at the crossroads," in Norman Denzin and Yvonna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pp. 403-412.
- 1998 "An argument for visual sociology," in Jon Prosser, ed., *Image-based Research: A Sourcebook for Qualitative Researchers*, London: Falmer Press. pp. 24-41.
- 2000 "Reimaging visual methods: Galileo to Neuromancer," in Norman Denzin and Yvonna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pp. 717-732.
- 2001 *Changing Works: Visions of a Lost Agricul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02 "Talking about pictures: a case for photo elicitation," *Visual Studies* 17(1): 13-26.

Harper, Douglas and Patrizia Faccioli

- 2000 "'Small silly insults,' mutual seduction and misogyny: the interpretation of Italian advertising signs," *Visual Sociology*

15(1/2): 23-49.

Heider, Karl

1976 *Ethnographic Film*,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Hymes, Dell

1974 *Foundations in Sociolinguistic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Jacknis, Ira

1989a "Franz Boas and Photography," *Studies in the Anthropology of Visual Communication* 10(1): 2-60.

1989b "Margaret Mead and Gregory Bateson in Bali: their use of photography and film," *Cultural Anthropology* 3(2): 160-77.

1990 "James Mooney as an Ethnographic Photographer," *Visual Anthropology* 3(2-3): 179-212.

Kenney, Keith

1993 "Using self-portrait photographs to understand self-concepts of Chinese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Visual Anthropology* 5: 245-269.

Kretsedemas, Philip

1993 "Reading advertisements: race vs. ethnicity?," *Visual Sociology* 8(2): 40-47.

Krouse, Susan Applegate

1990 "Photographing the Vanishing Race," *Visual Anthropology* 3(2-3): 213-234.

Lakoff, Andrew

1996 "Freezing Time: Margaret Mead's Diagnostic Photography," *Visual Anthropology Review* 12(1): 1-18.

Lutz, Catherine A. & Jane L. Collins

1993 *Reading National Geographic*,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ead, Margaret

- 1975 "Visual Anthropology in a Discipline of Words," in Paul Hockings, ed., *Principles of Visual Anthropology*, Berlin and New York: Mouton de Gruyter. pp. 3-10.

Mead, Margaret and Gregory Bateson

- 1942 *Balinese Character: A Photographic Analysis*, New York: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Mead, Margaret and Frances Macgregor

- 1951 *Growth and Culture: A Photographic Study of Balinese Childhood*, New York: G.P. Putnam and Son.

Monti, Nicolas

- 1987 *Africa Then: Photographs 1840-1918*, New York: Alfred A. Knopf.

Musello, Christopher

- 1980 "Studying the home mode: an exploration of family photography and visual communication," *Studies in the Anthropology of Visual Communication* 6(1): 23-42.

Pinney, Christopher

- 1990 "Classification and Fantasy in the Photographic Construction of Caste and Tribe," *Visual Anthropology* 3(2-3): 259-288.
- 1992 "The Parallel Histories of Anthropology and Photography" in Edwards Elizabeth, ed., *Anthropology and Photography: 1860-1920*,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p. 74-96.

Ruby, Jay

- 1975 "Is an Ethnographic Film a Filmic Ethnography?," *Anthropology of Visual Communication* 2(2): 104-111.
- 1976 "In a Pic's Eye: Interpretive Strategies for Deriving Significance and Meaning from Photographs," *Afterimage* (March): 5-6.
- 1980 "Franz Boas and Early Camera Study of Behavior," *The Kinesis Report* 3(1): 6-11.

- 1981 "Seeing Through Pictures: The Anthropology of Photography," *Camera Lucida* 3: 20-33.
- 1984 "Post-Mortem Portraiture in America," *History of Photography* 8(3): 201-222.
- 1985 "Frances L. Cooper, Spruce Hill Photographer," *Studies of Visual Communication* 11(4): 12-29.
- 1995 *Secure the Shadow: Death and Photography in America*, Cambridge, Mass.: MIT Press.
- Scherer, Joanna Cohan
- 1990 "Historic Photographs as Anthropological Documents: A Retrospect," *Visual Anthropology* 3(2-3): 131-155.
- Schwartz, Dona
- 1992 *Waucoma Twilight: Generation of the Farm*, Washington, DC: Smithsonian Press.
- Sekula, Allan
- 1984[1975] "On the Invention of Photographic Meaning," in Alan Sekula, ed., *Photography Against the Grain*, Halifax: The Press of the Nova Scotia College of Art and Design. pp. 3-21.
- Spencer, Frank
- 1992 "Some Notes on the Attempt to Apply Photography to Anthropometry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Edwards Elizabeth, ed., *Anthropology and Photography: 1860-1920*,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p. 99-107.
- Snyder, Eldon E.
- 1990 "Emotion and sport: a case study of collegiate women gymnasts," *Sociology of Sport Journal* 7(3): 254-270.
- Steiger, Ricabeth
- 1995 "First children and family dynamics," *Visual Sociology* 10(1/2): 28-49.

- Stiebling, Megan T.
 1999 “Practicing gender in youth sports,” *Visual Sociology* 14(1/2): 127-144.
- Suchar, Charles S.
 1988 “Photographing the changing material culture of a gentrified community,” *Visual Sociology Review* 3(2): 17-22.
 1992 “Icons and images of gentrification: the changed material culture of an urban community,” *Gentrification and Urban Change: Research in Urban Sociology* 2: 165-192.
- Suchar, Charles and Robert Rotenberg
 1994 “Judging the adequacy of shelter: a case from Lincoln Park,”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11(2): 149-165.
- Van der Does, Patricia, Sonja Edelaar, ImkeGooskens, Margreet Liefing and Marije van Mierlo
 1992 “Reading images: a study of a Dutch neighborhood,” *Visual Sociology* 7(1): 4-67.
- Young, Michaels
 1998 *Malinowski’s Kiriwina. Fieldwork Photography 1915-1918*,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gner, Jon
 1979 “Perceiving a planned community,” in Jon Wagner, ed., *Images of Information*, Beverly Hills, CA: Sage Publishers. pp. 85-100.
- Webster, Frank
 1980 *New Photography: Responsibility in Visual Communication*, London: John Calder.
- Worth, Sol
 1981 *Studying Visual Communica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Worth, Sol and Larry Gross
 1974 “Symbolic Strategies,” *Journal of Communication* 24(4): 27-39.

Wright, Terence

1991 "The Fieldwork Photographs of Jenness and Malinowski and the Beginnings of Modern Anthropology," *JASO* 22(1): 41-58.

〈Key concepts〉: anthropology of photography, historical photography, ethnographic photography, photographic cultures, photo-elicitation

A Review of Research Methodology in the Anthropology of Photography

Lee, Kijung*

This paper reviews anthropological literature relating to the anthropological study of photographs. It looks at a methodological issues involved in studying photographs as anthropological investigation and classifies its methodologies into four categories.

First, it looks at ‘historical photography’ as anthropological documents and explores into three kinds of studies in relation to it: photography and anthropometry, anthropological imagemakers (photographers), and photographic image and representation. Second, it deals with photographic works of Bronislaw Malinowski, Franz Boas and Magaret Mead. The anthropological investigation into various photographic cultures is third issue. Finally, the paper introduces ‘photo-elicitation’ and elucidates its history, methodology and research samples in the fields of anthropology and sociolog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